

清華簡〈芮良夫毖〉 주해(상)

이 연 주*, 張崇禮**

<목 차>

1. 머리말
2. 清華簡 〈芮良夫毖〉의 시대적 배경과 내용
3. 清華簡 〈芮良夫毖〉역주(상)
4. 맺음말

1. 머리말

〈芮良夫毖〉는 清華簡 3차 연구결과¹⁾에 포함되어 발표된 周代 문헌 중 한 편으로 清華簡 〈耆夜〉, 〈周公之琴舞〉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선진 시기의 주요 逸詩이다. 두 首로 이루어진 186구의 長詩로 西周末 厲王(기원전 879~841) 시기의 대부였던 芮의 良夫²⁾가 당시의 어지러운 나라 상황에 대해

*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 中國 北華大學 中文系 教授

1) 清華簡(清華大學藏戰國竹簡)은 2008년 清華大學이 기증받아 2년여 기간에 걸친 보존 처리와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한 전국시대 죽간으로, 다수의 중요한 《尚書》 및 유사류 문헌과 여러 편의 귀중한 先秦시기 逸詩를 포함하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5차에 걸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清華簡에 대해서는 이연주·張崇禮(2014)에서 개괄하였다.

2) 芮는 周왕실과 같은 姬姓의 제후국으로 陝西省 朝邑鎮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周武王때 제후국으로 봉해졌으며, 춘추시기 秦 穆公에 의해 멸망하였다. 군주의 爵位는 伯으로, 孔疏에서 〈毛詩序〉를 인용해 천자가 직접 다스리던 지역인 畿內 제후국이었다고 하고 있다. 芮良夫는 西周 厲王 시기의 인물로 芮의 군주이며 주왕실의 대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左傳》文公元년에 《詩經·大雅·桑柔》의 시구가 인용되고 있는데 芮良夫의 시라고 밝히고 있다.(周芮良夫之詩曰:“大風有隧, 貪人敗類, 聽言則對, 誦言如醉, 匪用其良, 覆俾我悖”)厲

걱정하고 대신들과 왕에게 훈계 및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³⁾. 내용면에서 볼 때 《詩經大雅》 류의 시로 볼 수 있으며, 戒敕의 의미를 갖는 愬詩라 할 수 있다⁴⁾. 형식면에서 〈芮良夫愬〉는 《尚書》에서 흔히 보는 서두에서 글을 쓴 배경을 먼저 밝힌 후 이어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⁵⁾. 본고에서는 〈芮良夫愬〉의 시대적 배경과 내용을 먼저 살펴본 후 序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1수를 역주하고자 하며, 제2수에 대한 역주는 다음 번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⁶⁾

2. 〈芮良夫愬〉의 시대적 배경과 내용

〈芮良夫愬〉는 西周末 厲王 재임기의 나라가 어지러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이다⁷⁾. 西周는 기원전 1046년 武王이 商을 멸하고 周를 건국한 이후

왕이 도의를 잃은데 대해 警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逸周書芮良夫解》도 芮良夫와 관련이 있는 문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國語周語》에도 '芮良夫論榮夷公專利'라는 글이 있다. 이로 볼 때 芮良夫는 周왕실 내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었으며 문필이 뛰어났던 인물로 생각된다. (《左傳》, 《國語》, 《逸周書》, 김학주(2010), Baidu, 《毛詩正義》 검색 원문 등을 참고함)

- 3) 〈芮良夫愬〉는 簡組의 제 1支 뒷면에 '周公之頌志'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 簡의 다른 支 뒷면의 번호와 비교해 墨迹의 색이 옅고 희미하며 굵어낸 흔적이 분명해서 舊簡에 2차로 손을 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序의 끝부분에 "芮良夫乃作愬再終"이라고 한 것에 바탕해 整理組가 〈芮良夫愬〉라는 제목을 부여했다.
- 4) 清華簡의 출토는 西周시기 愬詩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발시키고 있다. 馬芳(2015a,b)은 愬詩의 범례와 변화궤적, 체제의 특징을 추적하여, 祭祀 또는 칭송 시의 儀式敬語가 발전해 儀式敬戒詩가 되고, 儀式敬戒詩가 발전해 헌시를 통해 뜻을 펼치는 敬戒詩가 되는 두 단계의 발전을 거쳤을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西周시기 祭禮와 諫戒제도의 필요에 의해 부단히 창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 5) 姚小鷗(2014)는 이를 先秦 詩序의 흔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趙平安(2012)은 이런 형식상 문제와 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芮良夫愬〉를 詩歌의 형식을 띤 《尚書》 류 문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6) 〈芮良夫愬〉는 해석상 난해한 부분이 많아 중국에서도 그동안 개별글자나 특정 부분에 대한 해석이 발표되었을 뿐 전문해석은 발표된 것이 없었다. 또한 개별글자에 있어서도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다수 있어왔다.
- 7) 이 시기의 상황은 《史記》 등의 사서와 《逸周書芮良夫解》, 《國語周語》에 수록된 '芮良

한동안 안정기를 거쳤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史記》를 보면 4대 昭王(기원전 995~977년) 때에 이르러 이미 왕도가 점차 쇠약해졌으며⁸⁾, 5대 穆王(기원전 977~922) 시절에는 건용정벌을 놓고 왕과 신하간 의견대립이 보인다.⁹⁾ 또 제후 가운데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¹⁰⁾. 이러한 왕도의 쇠락은 7대 懿王(기원전 900~892)대에 이르면 보다 심해져 《史記》에서는 이 시기에 諷刺詩가 출현했다고 했다.¹¹⁾ 이와 같은 내부적인 갈등과 변방 이민족의 잦은 침입 등 어려운 상황 속에 10대 厲王이 등극하는데, 厲王은 왕실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專利를 시행해 귀족과 백성의 원성을 사는 한편 이러한 원성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다가 난이 일어나 제후국으로 쫓겨 가는 상황에 이른다.¹²⁾

〈芮良夫愆〉는 이와 같은 어지러운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¹³⁾, 〈序〉에서 보듯 왕실의 환란과 외적의 침입이라는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도 왕과 대신들이 각자의 안위와 영달만을 꾀하고 백성의 고난과 나라의 어지러움을 외면하는 것을 질책하고 경고하고 있다. 제1수의 내용을 보면, 제1수는 작자가 고관대작과 대신들에게 하는 경고와 당부로 주로 담고 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변치 않는 도(常道)를 공경해 규범으로 따르며 민심을 새기지 않으면 재난과 화가 미칠 것임을 경고하고, 탐욕을 억제하고 어긋난 행위를 바로 할 것과 교만과 안일, 방탕에서 벗어나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까 근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한탄과 작자의 근심걱정을 토로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이를 찾아 이들의 조언과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

夫論榮夷公專利 등의 글을 보면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西周 역사에서 厲王시기는 왕실의 본격적인 쇠락기로 내부 갈등이 심하던 시기였으며, 《詩經》의 〈小雅〉와 〈大雅〉편에는 이를 전후한 시기의 시로 추정되는 다수의 諷刺(또는 怨刺)시가 수록되어 있다.

8) 《史記·周本紀》：“昭王之時，王道微缺”
 9) 《國語·周語》의 ‘祭公諫穆王征犬戎’편에 기록되어 있다.
 10) 《史記·周本紀》：“諸侯有不睦者，甫侯言於王，作修刑辟”
 11) 《史記·周本紀》：“共王崩，子懿王艱立。懿王之時，王室遂衰，詩人作刺”
 12) 이때의 상세한 상황은 《國語·周語》의 ‘芮良夫論榮夷公專利’편과 ‘邵公諫厲王弭謗’편에 기록되어 있다. 厲王 시기의 전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 《帝王世紀》에서는 “自厲王失政，獫狁荊蠻，交侵中國，官政隳廢，百姓離散”이라 기술하고 있다.
 13) 같은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로 《詩經·大雅·桑柔》가 있다.

하며, 선왕대의 선정과 업적을 회고하고 군주에게 훌륭한 통치를 당부하고 있다. 이는 제2수에서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을 부연하고 하늘이 버리고 민심이 이반하기 전에 반성하고 올바른 법도를 세워 나라를 질서 있게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혼란스러운 국가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을 수 없는 작자의 빈민을 토로하고 군왕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들에 대한 당부로 시를 맺고 있다¹⁴⁾.

3. 淸華簡 〈芮良夫毖〉 역주(상)¹⁵⁾

【간문1】¹⁶⁾

周邦聚(驟) [1]又(有) 禍(禍), 寇(寇)戎[2]方晉[3]. 畢(厥)辟 [4] 戡(御)事[5], 各營(營) [6]元(其)身. 憲(恒)靜(爭) [7]于 寔(富) [8], 莫(紿) (治) [9]庶難(難)[10], 莫(卹)[11]邦之不 寧(寧)[12]. 內(芮) 良夫乃 復(作) 詔(毖)[13]再(終), 曰:

【주석】

[1] 整理者(2012)는 ‘聚’는 ‘驟와 통한다고 했는데, ‘驟’는 부사로, ‘여러 차례, 누차’의 뜻이다. 《左傳·文公十四年》에 “公子商人驟施於國(공자 상인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여러 차례 베풀어)”라고 했고, 杜預의 注에서 “驟는 여러 차례의

14) 제2수는 “吾用作毖再終, 以寓命達听(警戒의 시 두 수를 지어 충고를 기탁하니 잘 전달되어 그대들이 듣기 바란다네)”로 끝맺고 있다.

15) 본 역주는 淸華大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이하 整理者라 함)가 연구 발표한 《淸華大學藏戰國竹簡(三)》(上海: 中西書局, 2012)과 그밖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해 참고하고 자체 연구해 작성하였다. 張崇禮의 연구를 토대로 이연주가 우리 말로 역주하였으며, 머리말 및 시대적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주석에서 개별 학자의 견해를 인용한 경우는 학자명과 발표연도를 명시하였다.

16) 주해를 위해 시의 내용에 의거하고 압운을 참고해 임의로 간문을 【간문1】 ~ 【간문10】으로 구분하였다.

뜻”이라고 했다.

[2] 寇戎은 외적이 침범해오는 것을 말한다. 《周禮·春官·小祝》에 “有寇戎之事, 則保郊祀於社(도적이나 외적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으면 郊祀를 社에서 보호한다)”라고 했으며, 《逸周書·時訓》에 “鷹不化鳩, 寇戎數起(鷹이鳩가 되지 않았으며 외적이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다)”고 했다.

[3] 整理者(2012): 脣은 증가하다, 나아가다의 뜻이다. 《易·象傳》에서 脣卦를 풀이하기를, “脣은 나아가다(進)의 뜻”이라고 했다.

[4] 整理者(2012): 厥辟은 그 군주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周厲王을 가리킨다.

[5] 整理者(2012): 御事는 孔傳에 “諸御治事者(여러 관리들)”이라고 했고, 孫星衍의 疏에서 “일을 주관하는 관리”라고 했다. 여기서는 榮夷公의 무리를 가리킨다.

[6] 整理者(2012): 營은 ‘營’의 통가로, 《公羊傳》 莊公二十五年的 “以朱絲營社”라는 구절에 대한 陸德明《釋文》에서 “(營은) 본래 營으로도 쓰며 같은 글자”라고 했다. 《孟子·梁惠王上》에 “經之營之(자리를 잡고 터를 닦아 건축을 도모하자)”라고 했는데, 朱熹 注에 “營은 일을 꾀하다, 도모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7] 整理者(2012): ‘靜’은 ‘爭’과 통한다.

[8] 整理者(2012): ‘寔’은 ‘富’와 통한다.

[9] 整理者(2012): ‘緝’은 ‘治’와 통한다.

[10] 整理者(2012): ‘難’은 ‘難’과 통한다. 《書·堯典》에 “庶績咸熙(모든 나랏일이 다 잘되어 갔고)”라고 했는데, 蔡沈의 《集傳》에 “庶는 모든(衆)의 뜻”이라고 했다.

[11] 整理者(2012): 卹은 걱정하다, 근심하다(憂)의 뜻이다.

[12] 整理者(2012): 寧은 곧 ‘寧’인데, 문헌에서는 대부분 ‘寧(안녕)’으로 쓴다.

[13] 整理者(2012): 謫은 문헌의 ‘愆’에 상당하는데, 王念孫《廣雅疏證》에

서 ‘愍’는 “경고하다, 훈계하디의 뜻(戒敕之意)”이라고 했다. ‘愍’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 <酒誥>에 “汝典聽朕愍(너는 언제나 나의 훈계를 따라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으며, “作謔再終”의 ‘謔’은 “朕愍”의 ‘愍’와 마찬가지로 명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作謔再終”은 형식상 “作歌一終”과 매우 유사하다¹⁷⁾.

【번역】

주나라에 여러 차례 환란이 일어나고
 외적의 침범은 갈수록 빈번해지는데,
 천자와 대신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구하네.
 끝없이 재물만을 탐할 뿐
 아무도 각종 재난을 다스리는 자 없고
 나라의 위난을 근심하는 이 없네.
 이에 芮良夫가 경고하는 愍 두 수를 지어 이르노니:

【간문2】

敬之 綏 (哉), 君子! 天猷(猶)[1]畏矣。敬 綏 (哉) 君子! 臺
 (寤) [2] 敷 (敗) [3] 改繇(謠)[4]。 斃 (恭) 天之畏 (威), 載[5] 聖
 (聽) [6] 民之繇[7]。 闕 (間) 隔[8] 若 (若)[9] 否[10], [11] 以自訛
 (訾) 讀 (噴) [12]; 由[13] 求 (仇) [14] 聖人, 以 繡 (申)[15] 尔(爾)
 愍 (謀) 猷[16]。 母(母) 頥 (羞) 駢 (聞) 繇(謠)[17], 戾(度)[18] 母

17) ‘作歌一終’은 淸華簡<耆夜>에 나온다. 李學勤(2010)에 따르면, “옛날에 시가 모두 음악으로 연주되던 시기에 한번 연주하는 것을 一終이라고 했다.” 또 方建軍(2014)은 같은 맥락에서 “再終과 三終은 모두 두 수, 또는 세 수의 독립적인 단일 樂段의 음악작품이다.”라고 했다. 시가 음악으로 연주되던 전통에 기인한 표현들로, 시 자체만을 놓고 볼 때 作歌一終은 시 한 수를 짓는다, 作愍再終은 愍 두 수를 짓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毋)又(有)謠(咎)[19].

【주석】

[1] 整理者(2012): 猷는 곧 '猶'다. ~할 수 있다(可)로 풀이된다. 《詩·小雅·白華》에 “之子不猶(님은 돌아올 수 없다네)”라고 했는데, 毛傳에 “猶는 ~할 수 있다(可)의 뜻”이라고 했다. 吳昌瑩 《經詞衍釋》 卷一에 “猶는 ~할 수 있다(可)와 같다. <燕策>의 ‘安猶取哉(어찌 능히 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는 齊나라가 어찌 능히 취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를 의미한다.”고 했다.

[2] 躄는 곧 '寤'字이며, '寤'의 통가이다. 거스르다, 거역하다의 뜻이다. 《文選·宋玉·高唐賦》에 “陬互橫梧, 背穴偃蹠(길모퉁이 가로막은 암석들이 이리저리 누워 있네. 가로 놓고 모로 누워 가는 길을 가로 막고 있네.)”라고 했는데, 李善의 注에 “許慎의 《淮南子注》에 ‘蹠은 밟히다(踏)의 뜻이고, 寤는 거스르다(逆)의 뜻’이라고 했다. 길에 가로막은 돌이 그 앞길을 가로 막고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했다.

[3] 敗는 손상시키다. 파괴하다의 뜻이다. 《廣雅·釋詁一》에 “敗는 파괴하다(壞)의 뜻”이라고 했다. 《詩經·大雅·民勞》에 “無俾正敗(정도를 파괴하지 말았으면)”이라고 했는데, 鄭玄의 箋에 “敗는 파괴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4] 謠는 '謠'의 통가로, 민간에서 유행하는 가요를 말한다. 《國語·晉語六》에 “辨祲祥於謠(민가 속의 선악을 가리고)”라고 했는데, 韋昭의 注에 “유행하는 노래를謠라 한다.”고 했다.

[5] 整理者(2012): 載는 문장의 첫머리에 사용되는 조사로, 《詩經》이나 金文에 자주 나온다.

[6] 整理者(2012): '聖'은 '聽'과 같다.

[7] 單育辰(網名ee)¹⁸⁾: “載聽民之繇”의 '繇'도 또한 '謠'의 통가다.

[8] 間隔은 가로막히다, 견제하다의 뜻이다. 《穆天子傳》 卷三에 “道里悠

18) 중국내 출토문헌연구 사이트인 簡帛網簡帛論壇·簡帛研讀, <清華簡三《芮良夫毖》初讀>帖 (2013.01.13)에 게재됨.

遠, 山川間之(길은 멀고 산천이 가로막히었나니)”라고 했고, 《戰國策·趙策二》에 “秦無韓魏之隔, 禍中於趙矣(진나라가 한나라와 위나라를 견제하지 않으면 화는 반드시 조나라에 집중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9] 若은 선하다(善)의 뜻이다.

[10] 否는 악하다(惡)의 뜻이다.

[11] 若否는 臧否와 같으며, 善惡得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평가하다, 폄평하다, 좋고 나쁨을 평가하다는 뜻이다.

[12] 讀는 ‘嘖’의 통가로, 《廣韻·怪韻》에 “嘖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 조롱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整理者는 讀를 ‘毀(비방하다)’의 통가로 보았다.

[13] 由는 따르다의 뜻이다. 《韓詩外詩》卷四에 “由其道則行, 不由其道則廢(그 도를 따르면 행해지고, 그 도를 따르지 않으면 폐해진다.)”고 했다.

[14] 求是 ‘仇’와 통하며, 배필, 짝의 의미다. 《尚書·康誥》에 “我時其惟殷先哲王德, 用康乂民作求(나는 그래서 오직 은나라의 옛 어진 임금들의 덕으로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리고 그 분들의 짝이 되려고 힘쓰고 있다.)”고 했으며, 《詩經·大雅·下武》에 “王配于京, 世德作求(임금님은 도성에 어울리며, 선대의 덕이 있는 사람들과 짝이 되네)”라고 했는데, 王國維는 〈與友人論詩書中成語書二〉에서 “求是 仇의 통가자이며, 배필의 뜻이다. 作求是 《書》에서 말한 ‘作匹作配(배필이 되어)’와 《詩》에서 말한 ‘作對(짝이 되어)’의 뜻이다. 〈康誥〉에서 말한 ‘은나라 선왕의 덕으로 백성을 편안히 다스리는 사람과 짝이 되고’와 〈大雅〉에서 말한 ‘선대의 덕이 있는 사람과 짝이 되고’와 같다.”¹⁹⁾고 했다.

[15] 申은 확장하다, 확대하라는 뜻이다. 《廣雅·釋詁四》에 “申은 펴다, 늘이다(伸)의 뜻”이라고 했으며, 《易·繫辭上》에 “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그것을 끌어 펼치고 같은 유형으로 확대하면 천하의 모든 일을 능히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孔穎達의 疏에 “引而伸之라는 것은 八卦를 끌어 펼쳐 끝까지 확장하는 것을 이른다”고 했다.

19) 求是, 仇之假借字. 仇, 匹也. 作求, 猶《書》言作匹作配, 《詩》言作對也. 《康誥》言與殷先王之德能安治民者爲仇匹, 《大雅》言與先世之有德者爲仇匹, 故同用此語. (《觀堂集林》, 中華書局, 1961, 78-79p)

[16] 謀猷는 책략, 계획의 뜻이다. 《尙書·文侯之命》에 “亦惟先正克左右昭事厥辟, 越小大謀猷, 罔不率從, 肆先祖懷在位(또한 옛날 장관들이 잘 보좌하여 그들의 임금을 도우며 섬기었으므로, 이에 작고 큰 계획들에 따르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요, 그리하여 선조들께서는 편안히 임금자리에 계실 수 있었소)”라고 했다.

[17] 單育辰(網名ee)²⁰⁾: “母頤聞繇”는 “母羞聞謠”의 통가다.

[18] 度는 도모하다, 계획하다의 뜻이다. 《爾雅·釋詁上》에 “度는 계략(謀)의 뜻”이라고 했으며, 《玉篇·又部》에 “度는 계획(揆)의 뜻”이라고 했다.

[19] 整理者(2012): ‘謠’은 ‘쌈(과실)’과 통한다. 《書·盤庚上》에 “非予有咎(내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요)”라고 했는데, 蔡沈《集傳》에 “쌈는 과실, 허물의 뜻”이라고 했다.

【번역】

경외할지어다, 높은 벼슬에 있는 君子들이여!

하늘은 가히 두려워할 만하니.

경외할지어다, 높은 자리에 있는 君子들이여!

그대들의 어긋난 행위와 品德의 파괴는 民歌에 반영되어 나타날지니.

그대들은 하늘의 威嚴을 공경하고

민간에 유행하는 가요를 새겨들을지어다.

비판을 가로막으면

종국에는 책망과 조롱을 면치 못할지니.

어질고 현명한 이를 따르고 그들과 짝이 된다면

그대들의 계획을 널리 펼칠 수 있으리라.

民歌를 새겨들어 그 안에 담긴 비판을 듣기를 부끄러워 마라.

일을 계획하고 도모함에 과실이 없도록 하라.

20) 주18)과 동일함.

【간문3】

母(母)憊(憊)[1] 愈 (貪)[2] 𢦏 (悖) [3] 𢦏(悞)[4]。圃(滿)[5] 滙 (盈)[6] 康[7] 戲, 而不知 莖 (寤) 告(覺)[8]。此心目亡(無)亟 (極) [9], 稟 (富) 而亡(無)况 (倪) [10]。甬 (用) 莫能 止 (止) 欲, 而莫 (肯) 肯齊[11]好[12]。尙[13] 𢦏 𢦏 (恆恆) [14], 敬 綏 (哉) !

【주석】

[1] 整理者(2012): 憊은 《說文·心部》에 “河內의 북쪽에서는 탐하다(貪)를 憊이라 한다.”고 했는데, 段玉裁의 注에 “憊과 女部の ‘婪’은 音義가 같다”고 했다. 《左傳》 昭公二十八年에 “貪憊無厭(욕심과 불평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했는데, 《釋文》에서 《方言》을 인용하여 “楚人들은 탐하다(貪)를 憊이라고 한다”고 했다.

[2] 整理者(2012): ‘愈’은 ‘心’과 ‘畚’聲으로 구성된 글자이며, ‘畚’은 ‘酉’과 ‘夨’聲으로 구성된 글자이다. ‘愈’은 ‘貪(탐하다)’의 통가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는 ‘貪’의 異體字로 추정된다.

[3] 單育辰(網名ee)²¹⁾: ‘𢦏’은 원래 ‘孝’와 ‘犬’으로 구성된 글자인데, ‘孝’는 ‘孛’의 訛形으로 추정되므로 ‘孛’과 ‘犬’으로 구성된 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 글자와 함께 ‘悖悞(或昏)’의 통가로 추정된다.

[4] 整理者(2012): 悞은 《廣雅·釋詁三》에 “어지럽다(亂)의 뜻”이라고 했다.

[5] 整理者(2012): 圃은 ‘滿’의 古文이다.

[6] 整理者(2012): 滙은 ‘盈’의 異體이다.

[7] 整理者(2012): 康은 〈唐風·蟋蟀〉에 “無已大康(지나치게 즐기지 말고)”라고 했는데, 毛傳에 “康은 즐겁다(樂)”라고 했다.

21) 주18)과 동일함.

[8] 曹方向(網名‘魚游春水’²²): 告는 아마도 ‘覺’의 통가로 추정된다. 告와 覺은 독음이 見母雙聲이며, 韻部는 陰入對轉에 속하기 때문에 音理상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孝經孝治》에서 《詩大雅抑》를 인용하여 “有覺德行(그의 위대한 덕행을)”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毛詩와 동일하다. 그러나 今本 《禮記緇衣》에서는 “有楷德行”라고 인용하고 있다. 郭店簡本의 ‘覺’과 ‘楷’에 해당하는 글자를 李學勤과 張富海는 ‘楷’로 해석했다. 이 簡文의 ‘告’를 ‘覺’의 통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說文》에 “悟²³는 깨닫다(覺)의 뜻”이라고 했으며, 《玉篇》에 “悟는 깨닫다(覺悟)의 뜻”이라고 했다. “不知悟告”는 아마도 오늘날 말하는 ‘미혹되어 깨닫지 못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9] 整理者(2012): ‘亟’는 ‘極(한계)’와 통한다. 《左傳》昭公十三年의 孔穎達 疏에 “極은 한계(限極)를 말한다”고 했다.

[10] 整理者(2012): 況는 문헌에서 ‘倪’로도 쓴다. 《莊子·大宗師》에 “不知端倪(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陸德明 《釋文》에 “倪는 본래 況라고도 쓴다.”고 했으며, 《集韻·佳韻》에 “倪는 간혹 況라고도 쓴다.”고 했다. 《莊子·齊物論》에 “何謂和之以天倪(天倪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했는데, 《釋文》에서 崔譔을 인용하여 “倪는 끝(際)의 뜻”이라고 했다.

[11] 齊는 속박하다, 제약하다(限制)의 뜻이다. 漢 仲長統 《昌言下》에 “情無所止, 禮爲之儉; 欲無所齊, 法爲之防(情에 멈춤이 없어 禮로 그것을 거두고, 欲에 제약이 없어 法으로 그것을 방지한다)”라고 했다.

[12] 好는 去聲으로 읽히며, 좋아하다(喜好)의 뜻이다. 《左傳·昭公二十五年》에 “喜生於好, 怒生於惡(기쁨은 좋아하는데서 생기고 노여움은 싫어하는데서 생긴다)”라고 했다.

[13] 尙은 숭상하다, 존중하다는 뜻이다. 《易經·剝》에 “君子尙消息盈虛,

22) 중국내 출토문헌연구 사이트인 簡帛網簡帛論壇·簡帛研讀, 〈清華簡三《芮良夫嗇》初讀〉帖(2013.01.08)에 게재됨

23) 曹方向은 본 주석에서 원문에 나오는 ‘寤’를 별도의 설명 없이 ‘悟’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이다. 整理者도 ‘悟’로 간주하고 해석하였다.

天行也(군자가 소멸하다가 불어나고 가득 찼다가 비우는 이치를 숭상하는 것은 하늘의 운행원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孔穎達의 疏에 “君子는 物理에 통달하여, 천지의 시운이 변하고 바뀔을 존중한다.”고 했다.

[14] 恆은 규칙, 법규의 뜻이다. 《國語·越語下》에 “因陰陽之恆, 順天地之常(陰柔陽剛의 자연규율을 常規로 삼고, 천지변화의 이치에 순응하고)”라고 했는데, 韋昭의 注에 “음양은 강함과 부드러움, 밝음과 어두움, 해와 달과 별의 남음과 모자람, 用兵에 있어서의 날카로움과 무덤 등의 常規를 말한다”고 했다. 恒恒은 불변의 법칙이나 규칙과 같은 규율의 뜻이다.

【번역】

탐욕과 반역의 마음을 품어 正道를 벗어나지 말며,
교만과 자만, 안일과 방탕에 빠지지 말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말라.
마음과 눈의 쾌락에는 한계가 없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으니
그리하여 그 탐욕을 멈출 수 없고,
그 좋아하는 바를 억제할 수 없게 된다네.
변치 않는 하늘의 법도를 숭상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할지어다.

【간문4】

寡 (顧)[1]皮 (彼) 逵 (後) 復 (復)[2], 君子而[3]受柬(諫)[4]. [5]萬民之 窘 (咎)[6], 所 (禦) [7]而弗敬; 卑(譬)[8]之若童(重)載以行 隄 (峭)[9]險, 莫之 救 (扶)道(導), 元(其)猶[10]不 邁 (顧)[11] 甲 (傾) [12] ?

【주석】

[1] 顧는 생각하다, 고려하다의 뜻이다. 《禮記·大學》에 “大甲曰: ‘顧諟天之

明命(태갑에 이르기를 '하늘의 밝은 명을 항상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했다.)
鄭玄의 注에 “顧는 생각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2] 整理者(2012): 《周禮·秋官·大司寇》에 “凡遠近惇獨老幼之欲有復于上(멀거나 가깝거나 외로운 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어느 누구나 바라는 일이 있어서 상부(왕)에 알리고자 하는데)”라고 했는데, 鄭玄의 注에 “復은 응보하다와 같은 뜻”이라고 했다.

[3] 而是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따라서, 그래서의 뜻이다.

[4] 東은 '諫'의 통가다.

[5] 受諫은 권고나 충고를 받아들이다의 뜻이다.


[6] 咎는 책망, 비방, 벌의 뜻이다. 《方言》卷十三에 “咎는 비방의 뜻”이라고 했다. 《詩經·小雅·北山》에 “或慘慘畏咎(어떤 이는 근심스레 벌을 두려워하네)”라고 했으며, 《論語·八佾》에 “遂事不諫, 既往不咎(끝난 일은 간하지 말고, 지난 일은 책망하지 말라)”고 했다.

[7] 所는 '禦'의 통가다. 禦는 금지하다, 거부하다의 뜻이다. 《爾雅·釋言》에 “禦는 금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小爾雅·廣言》에 “禦는 막다의 뜻”이라고 했다. 《易·蒙》에 “上九, 擊蒙, 不利爲寇, 利禦寇(上九는 어린이를 쳐서 깨우쳐야 한다. 盜賊이 되면 이롭지 않고, 盜賊을 막는 것이 이롭다)”고 했다.

[8] 整理者(2012): '卑'는 '譬(비유하다, 깨닫다)'와 통한다.

[9] 整理者(2012): '隄'는 곧 '峭(가파르다)'의 異體다. 《淮南子·繆稱》에 “城峭者必崩, 岸峭者必隄(높이 치솟은 城은 반드시 붕괴되고, 가파른 낭떠러지는 반드시 허물어진다)”고 했는데, 高誘 注에 “峭는 가파르다의 뜻”이라고 했다.

[10] 整理者(2012): '由'는 '猶(같다)'와 통한다.

[11] 郭永秉(2013):  은 곧 ' 顛 (顛)'(엎어지다)字이다.

[12] 卍 은 裘錫圭가 '傾'의 初文으로 추정했는데²⁴⁾ 옳다.

24) 郭永秉(2013) p11-12. 郭永秉은 이 주장이 틀리다고 했다.

【번역】

훗날의 응보를 생각해보라.
 군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와 간언을 겸허히 수용한다네.
 만백성의 책망에도
 아랑곳 않고, 이를 공경히 수용하지 않으면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로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는데
 길을 인도하는 이가 없는 것과 같아
 어찌 뒤엎어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간문5】

敬 綏 (哉) 君子, 恪 綏 (哉) 母(母)宍(荒)。畏天之 隆 (降)載 (災), 卹邦之不 頽 (臧)[1]。母(母)自縱(縱)于 逸 (逸), 以囂(傲)[2] 不 愒 (圖)難(難)。覓(變)改 崇 (常)統(術)[3], 而亡(無)又 (有) 紹 (紀)統(綱)[4]。此惠(德)型(刑)不齊[5], 夫民甬(用) 惇 (憂)[6]惕 (惕) [7]。民之儉(賤)[8]矣, 而佳(誰)畜(適)[9]爲王? 皮(彼)人不敬, 不藍 (鑒)于 顛 (夏)商。

【주석】

- [1] 整理者(2012): 頽 은 ‘貝’와 ‘뉘’聲으로 구성된 글자로, ‘臧’의 통가다.
- [2] 囂은 ‘敖’ 혹은 ‘傲’의 통가로, 오만하다, 건방지다의 뜻이다. 《爾雅·釋言》에 “敖는 거만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廣雅·釋言》에 “敖는 망령되다의 뜻”이라고 했다. 《書·益稷》에 “無若丹朱敖, 惟慢遊是好(丹朱처럼 오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아무 일도 안하고 놀기만을 좋아하며)”라고 했다.
- [3] 整理者(2012): ‘統’은 ‘術’과 통한다. 《國語·晉語六》에 “盡戒之術也(모두 자신을 경계하는 방법이니)”라고 했는데, 韋昭 注에 “術은 道의 뜻”이라고 했다.

[4] 整理者(2012): 紀綱은 法度を 가리킨다.

[5] 齊는 통일하다, 바로잡아 가지런히 하다는 뜻으로, 가지런히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荀子·富國》에 “必將修禮以齊朝, 正法以齊官, 平政以齊民 (반드시 예의를 닦아 조정을 바로잡고, 법을 바르게 하여 官을 바로잡고, 정치를 공평히 하여 백성을 바로잡는다)”고 했는데, 楊倞 注에 “齊는 바로잡아 가지런히 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6] 憂는 농담하다는 뜻이다. 《詩·大雅·板》에 “匪我言耄, 爾用憂譖; 多將煽熇, 不可救藥(내 말은 노망이 아닌데, 그대들은 장난과 농담으로 받아들이네. 말도 많이 하면 성만 나게 되어, 그 병은 고칠 약도 없게 된다네.)”라고 했는데, 俞樾 《古書疑義舉例·兩字一義而誤解例》에서 “《詩·板》篇에 ‘爾用憂譖’은 憂와 譖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 憂는 優의 통가인데, 襄六年 《左傳》 注에서 ‘優는 희롱하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한 바, 이 優가 곧 譖’이라고 했다.

[7] 楊은 《說文》에 “楊은 放(방자하다)의 뜻”이라고 했으며, 朱駿聲 《說文通訓定聲》에서는 “經傳에서 모두 ‘蕩(방자하다)’로 보았다”고 했다.

[8] 棧은 ‘棧’의 통가다. 《集韻·寒韻》에 “棧은 거스르다, 어기다의 뜻”이라고 했다. 《說文》에 “枝는 거스르다의 뜻”이라고 했는데, 段玉裁의 注에 “很이라는 것은 따르지 않다는 뜻한다”고 했다.

[9] 佳畜는 曹方向(網名‘魚游春水’)²⁵⁾이 ‘誰適’의 통가라고 추정했는데, 《玉篇·辵部》에서 “適은 언다의 뜻”이라고 했다. 《論語·里仁》에 “無適也(반드시 능한 것도 없고)”라고 했는데, 朱熹의 集注에 “適은 능히 ~가 되다의 뜻”이라고 했다. “誰適爲王”은 곧 ‘누가 왕이 될 수 있겠는가’의 뜻이다.

【번역】

경외하라 군자들이여!

삼가고 근신하며 방종하지 말라!

하늘이 재난과 화를 내려 벌할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25) 주22)와 동일함.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라.
 스스로 안일함에 빠져 방종하지 말라.
 그리하면 태만해져 재난에 대비하지 않게 되나니
 언제나 지켜야 할 변치 않는 도(常道)를 바꾸게 되면
 나라에 기강이 없어진다네.
 은택과 형벌이 가지런히 통일되지 못하면
 백성들은 방자하고 방탕하게 된다네.
 백성들이 어긋나고 방자해지면
 그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 사람(여왕)은 불경하여
 하왕조와 상왕조가 멸망한 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네.

【간문6】

心之 惛 (憂)矣 𡗗 (靡)所告眾(懷)[1]。 佳 (兄)弟(弟)[2]慝[3]矣, 志 (恐)不和均(均)[4]。 屯[5]員(圓) 𡗗 (滿) 溢 (溢), 曰余[6]未均。 凡百君子, 及(及)爾(爾) 𡗗 (蓋)臣[7], 疋(胥)[8]收[9]疋(胥)由[10], 疋(胥) 𡗗 (穀)[11]疋(胥)均(均)[12]。

【주석】

[1] 整理者(2012): 眾은 '懷'의 통가다. 《說文·心部》에 “懷는 그리워하다, 생각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2] 兄弟는 같은 성(同姓)의 나라를 가리킨다. 《書·蔡仲之命》에 “懋乃攸績, 睦乃四鄰, 以蕃王室, 以和兄弟(그대의 공적을 쌓기에 힘쓰며 사방의 이웃과 화목함으로써, 왕실의 울타리가 되고 형제 나라들과 화친하며)”라고 했는데, 孔傳에 “왕실의 울타리가 되고, 同姓의 나라들과 화친하고”라 풀이했다.

[3] 整理者(2012): 《孟子·梁惠王下》에 “民乃作慝(백성들이 이에 왕을 원망하게 된다)”고 했는데, 朱熹 集注에 “慝은 원망하고 싫어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4] 整理者(2012): <小雅·皇皇者華>에 “六轡既均(여섯 줄의 고삐가 고르게 조화롭기도 하여라)”라고 했는데, 毛傳에 “均是 조화롭다의 뜻”이라고 했다.

[5] 整理者(2012): 《易·比》에 “有孚盈缶(믿음이 가득하면)”이라고 했는데, 李鼎祚의 集解에서 虞翻을 인용하여 “屯이라는 것은 가득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廣雅·釋詁一》에 “屯은 가득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呂氏春秋·審時》에 “其粟圓而薄糠(그 좁쌀은 통통하고 겨 껍질이 얇으며)”라고 했는데, 高誘 注에 : “圓은 풍만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屯, 圓, 滿, 溢은 비슷한 의미를 연이어 썼다.

[6] 子居(2013b): 여기서 ‘余’는 바로 일인칭 ‘我’로 사용되었다.

[7] 蓋臣은 추천하여 임용된 신하를 말한다. 蓋은 나아가다의 뜻이다.

[8] 胥는 모두, 다의 뜻이다. 《詩·小雅·角弓》에 “爾之遠矣, 民胥然矣(그대가 멀리하면, 백성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라고 했는데, 鄭玄의 箋에 “胥는 모두의 뜻”이라고 했다.

[9] 收는 제약하다, 통제하다의 뜻이다. 《晏子春秋·外篇下十六》에 “寡人猶且淫佚而不收, 怨罪重積于百姓(과인은 그런데도 이렇게 음일하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원망을 듣게 되었소이다)”라고 했는데, 張純一의 校注에 “收는 거두다의 뜻”이라고 했다.

[10] 由는 따르다의 뜻이다. 《詩·大雅·假樂》에 “不愆不忘, 率由舊章(잘못도 실수도 없이 모든 일 옛 법도 따르네)”라고 했는데, 高亨 注에 “由는 따르다의 뜻”이라고 했다.

[11] 穀은 ‘慤’의 통가다. ‘穀’과 ‘慤’은 모두 ‘穀’聲을 따르기 때문에 통용된다. 《說文·心部》에 “慤은 삼가다의 뜻”이라고 했다. 《荀子·非十二子》에 “其容慤(그 얼굴은 삼가 공경하여)”라고 했는데, 楊倞 注에 “慤은 삼가 공경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12] 均是 어울리다, 조화롭다의 뜻이다. 《詩·小雅·皇皇者華》에 “我馬維駒, 六轡既均(내 수레 모는 말은 얼룩말인데 여섯 줄 고삐가 고르게 조화롭기

도 하여라)”고 했는데, 毛傳에 “均은 조화롭다의 뜻”이라고 했다.

【번역】

나는 마음 속 근심이 가득한데
속마음 털어놓을 곳 없어.
형제지간(同姓의 諸侯國)에 서로 원망하고 증오하여
서로 어울리지 못하네.
손에 넣은 것이 이미 넘쳐나는데도
자신은 다른 사람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하니.
모든 높은 자리에 있는 군자들과
그리고 그대들이 등용한 신하들이여,
다들 스스로를 통제하고 구속하며
삼가고 공경하며, 서로 조화될지이다.

【간문7】

民不日〔1〕幸〔2〕，尙〔3〕 惇 (憂)思〔4〕毖。先人有言，則畏 (威)〔5〕
蠹 (虐)〔6〕之。或因斬〔7〕椅(柯)〔8〕，不遠元(其)惻(則)〔9〕。〔10〕母(毋)
灌 (害)天 崇 (常)，各 壘 (當)〔11〕爾(爾)惠(德)。 寇 (寇)戎方
晉， 憇 (謀)猷〔12〕佳(惟)戒〔13〕。和 剋 (專)〔14〕同心，母(毋)又
(有)相 放 (勒)〔15〕。

【주석】

〔1〕 日은 날마다의 뜻이다. 《易·大畜》에 “剛健篤實輝光，日新其德(강건하고
독실하며 찬란하게 빛나서 날로 새로운 덕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그 강건하고 독실함으로 인해 찬란하게 빛나고 나날이 새롭게 그 덕을
더한다는 뜻²⁶⁾”이라고 했다.

〔2〕 幸은 《小爾雅·廣義》에 “非分而得謂之幸(분수에 맞지 않는데 얻는 것을

幸이라 한다)고 했다. 蔡邕《獨斷》卷上에 “世俗謂幸爲僥倖……言民之得所不當得故謂之幸(세간에서는 행복을 요행이라고 한다……백성들이 합당하지 못하게 얻는 것을 일러 행복이라 한다)고 했다.

[3] 尙은 오히려의 뜻이다. 《漢書·董仲舒傳》에 “民不樂生, 尙不避死, 安能避罪?(백성들이 사는 게 즐겁지 않고 죽음도 오히려 피하지 않는데 어찌 죄를 피하겠는가?)”라고 했다.

[4] 憂思는 근심하고 걱정하디 뜻이다. 《楚辭·九章·抽思》에 “心鬱鬱之憂思兮, 獨永歎乎增傷(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여 근심에 잠겨 홀로 깊이 탄식하니 슬픔만 더하는구나)”라고 했다.

[5] 畏는 ‘威’의 통가이다. 두려워 떨게 하디 뜻이다. 《易·繫辭下》에 “弦木爲弧, 剡木爲矢, 弧矢之利, 以威天下(나무를 휘어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 천하를 두려워 떨게 하니)”라고 했다.

[6] 虐은 폭력을 행사하디 뜻이다. 이런 의미의 ‘虐’은 흔히 ‘德’과 상대되는 말로 쓰인다. 《國語·越語下》에 “德虐之行, 因以爲常(은덕과 형벌의 시행은 변치 않는 규칙으로 다스리며)”라고 했는데, 韋昭注에 “德은 회유하고 상을 주는 것이며, 虐은 참하고 벌하는 것²⁷⁾”이라고 했다.

[7] 整理者(2012): 斬과 伐은 같은 뜻으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8] 整理者(2012): ‘椅’는 ‘柯’와 같다.

[9] 整理者(2012): ‘惻’은 ‘則’과 같다. “不遠其則”은 곧 “其則不遠”이 도치된 것으로, 압운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10] 整理者(2012): 이 두 구는 〈邠風·伐柯〉의 “伐柯伐柯, 其則不遠(나무 베어 도끼자루 만들려면 그 본은 멀지 않은 데 있다네)”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當은 적절하다(恰當), 적당하다(合適)의 뜻이다. 《正字通·田部》에 “當은 일의 이치가 적절하디 뜻”이라고 했다. 《禮記·樂記》에 “古者天地順而四時當, 民有德而五穀昌(옛날에 천지가 순응하고 사계절이 합당하면, 백성들

26) 以其剛健篤實之故, 故能輝耀光榮, 日日增新其德。

27) 德, 有所懷柔及爵賞也。虐, 有所斬伐及黜奪也。

이 덕이 있고 오곡이 풍성해진다)”고 했는데, 孔穎達의 疏에 “當은 그 있을 바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12] 謀猷은 계획, 책략의 뜻으로, 여기서는 貶義로 쓰였다. 清華簡〈耆夜〉에 “竝靖謀猷(각종 계획을 중식시키고 각종 모반을 불식시켰다)”²⁸⁾라고 했다.

[13] 戒는 끊다, 경계하다(戒除)의 뜻이다. 《論語·季氏》에 “孔子曰: ‘君子有三戒。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 젊었을 적에는 혈기가 완성되지 않아 여색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장년이 되면 혈기가 한창 강성하므로 싸움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노년이 되면 혈기가 쇠잔해졌으므로 물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14] 鄒可晶(2014): 勑 은 ‘搏’ 혹은 ‘團’의 통가가 아닐까 추정되며, 모이다의 의미로 보인다. 《史記·秦始皇本紀》에 실린 瑯琊의 석비에 이르기를 “普天之下, 搏心揖志(널리 온 천하가 마음을 모아 뜻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15] 放 은 ‘勒’의 통가로, 강요하다, 핍박하라는 뜻이다. 《玉篇·力部》에 “勒은 억눌러 억지로 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淮南子·汜論》에 “齊人有盜金者, 當市繁之時, 至掇而走。勒問其故曰: ‘而盜金於市中, 何也?’ 對曰: ‘吾不見人, 徒見金耳!’(제나라 사람 중에 돈을 훔친 자가 있었는데, 당시에 거리가 혼잡한 틈을 타서 도망을 쳤다가 붙잡히게 되었다. 억압해 그 까닭을 심문하여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거리에서 돈을 훔쳤느냐?’ 그는 대답하기를 ‘제 안중에는 사람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시다. 다만 돈만 보였습시다.’)라고 했다)”고 했다.

【번역】

백성들은 날마다 분수에 맞지 않는데도 얻지 못하면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한다네.

선인들이 말씀하시기를

28) 이연주張崇禮(2015a) 〈清華簡「耆夜」주해〉 참조.

이런 행위는 두려워 떨게 해야 하고 엄하게 징벌하라 했거늘.

나무 베어 도끼자루 만드는데

그 본은 멀지 않은 데 있나니.

하늘의 常道를 훼손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행위가 이에 합당하도록 할지니.

외적의 침범이 갈수록 찾아지는데

그대들은 각종 음모와 암투를 어서 그치고

화목하고 단결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핍박하지 않기 바라네.

【간문8】

恂(徇)求[1]又(有) 恂(才), 聖智憲(勇)[2]力[3]。必采(探)其庀(宅), 以 暉(親)[4]元(其) 牂(狀)[5]。身與之語, 以求元(其)上[6]。

【주석】

[1] 子居(2013b)는 여기의 '恂'은 '徇'의 통가로, '恂求'는 清華簡《說命》上篇의 '徇求'와 같다고 했다. 徇求는 방문하다는 뜻이다.

[2] 曹方向(網名'魚游春水'²⁹): 憲은 아마도 '勇'의 통가로 추정된다.

[3] 曹方向(網名'魚游春水'): 총명하고 지혜로운 이(聖智)와 용맹하고 힘센 사람(勇力)을 함께 들고 있는데 이는 바로 앞 문장의 '有才'에 연계된다.

[4] 整理者(2012): 親은 《戰國策·秦策二》에 “不能親國事也(나라의 큰일을 알지 못했지요)”라고 했는데, 高誘 注에 “親은 알다와 같은 의미”라고 했다.

[5] 整理者(2012): 狀은 《戰國策·楚策四》에 “春申君問狀(춘신군은 일의 상황을 물었다)”고 했는데, 鮑彪의 注에 “狀은 일의 상황의 뜻”이라고 했다.

[6] 上은 '尙'의 통가로, 돕다는 뜻이다. 《爾雅·釋詁下》에 “尙은 돕다는 뜻”

29) 중국내 출토문헌연구 사이트인 簡帛網簡帛論壇·簡帛研讀, 〈清華簡三《芮良夫毖》初讀〉帖 (2013.01.06)에 게재됨.

이라고 했는데, 邢昺 疏에 “郭이 이르기를 ‘紹, 介, 勸, 尙은 모두 돕다의 뜻’이라고 했다. 《詩·大雅·抑》에 “肆皇天弗尙, 如彼泉流, 無淪胥以亡(이에 皇天은 그대들 돕지 않는 것이니, 저 흐르는 샘물처럼 모두 함께 망하지 않기를)”이라고 했는데, 王引之 述聞에 “皇天이 도와주지 않음을 말한다”고 했다.

【번역】

재능 있는 인재를 찾아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이, 용맹하고 힘센 사람을 찾아내어
반드시 그 집을 찾아가
이모저모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보고
친히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그들의 도움을 구할지이다.

【간문9】

昔才(在)先王, 幾(既)又(有)衆脩(庸)。[1]□□庶難(難)[2], 甬(用)建元(其)邦。坪(平)和庶民, 莫敢烈(戾) [3]憧(縱) [4]。□□□□, □□□□。□{民}[5]甬(用) 黷(協)[6]保[7], 罔又(有) 膏(怨)誦[8]。 攄(恒) 靜(爭)獻元(其)力, 畏(威)[9] 燮(變)[10]方[11] 戩(讎)[12], 先君以多 衎(功)。

【주석】

[1] 整理者(2012)는 脩은 ‘庸’의 통가로, 《左傳》昭公十三年에 “君庸多矣(임금의 공이 큼니다)”라고 했는데, 杜預 注에 “庸은 功의 뜻”이라고 했다. 庸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공적이 있다는 뜻이다. 《爾雅·釋詁下》에 “庸은 힘쓰다의 뜻”이라고 했는데, 邢昺 疏에 “백성에게 공을 庸이라 한다”고 했다. 《周禮·夏官·司勳》에 “王功曰勳, 國功曰功, 民功曰庸(왕에게 功이 있는 것을 勳이라 하고, 나라에 功이 있는 것을 功이라 하고, 백성에게 功이 있는 것을 庸이라 한

다)고 했는데, 鄭玄 注에 “王業을 이루도록 도운 周公과 같은 사람이 있고, 나라를 보전한 伊尹 같은 사람이 있고, 백성에게 벼를 베푼 后稷과 같은 사람이 있다³⁰⁾”고 했다.

[2] ‘庶難’ 앞에 두 글자가 빠졌는데, 앞 【간문1】의 “莫治庶難”과 제2수에 나오는 “不逢庶難³¹⁾”을 참고하면, “□□庶難”은 아마도 “□治庶難”이나 또는 “不逢庶難”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3] 𠄎은 ‘心’과 ‘列’³²⁾으로 구성된 글자로 ‘戾’의 통가이며, 거스르다, 어긋나다의 뜻이다. 《淮南子·覽冥》에 “舉事戾蒼天, 發號逆四時(이때 군주가 일을 하면 하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며, 명령을 내리고 정치를 시행하면 또 시기를 거스르게 된다)”고 했는데, 高誘 注에 “戾는 반하다(反)의 뜻”이라고 했다.

[4] 𠄎은 ‘縱’의 통가로, 방종하다의 뜻이다. 《爾雅·釋詁》에 “縱은 어지럽다(亂)의 뜻”이라고 했다. 《玉篇·糸部》에 “縱은 방자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書·太甲中》에 “欲敗度, 縱敗禮(욕망을 좇아 법도를 어기고 방종함으로써 예를 어기니)”라고 했다.

[5] 王坤鵬(2013): 簡文 앞의 빠진 글자에 ‘民’字를 보충하여야 한다.

[6] 協은 화목하다의 뜻이다. 《書·湯誓》에 “有衆率怠弗協(백성들은 모두 게으르고 화합하지 못하며)”라고 했으며, 《左傳·僖公二十二年》에 “吾兄弟之不協, 焉能怨諸侯之不睦?(지금 임금님의 형제들이 서로 불화하니, 어찌 제후들이 화목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7] 保는 안정되다의 뜻이다. 《廣雅·釋詁四》에 “保는 안정되다의 뜻”이라고 했다. 《廣韻·皓韻》에 “保는 편안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詩·小雅·楚茨》에 “神保是饗(신들께서 편안히 제사를 받아 드시네.)”라고 했는데, 毛傳에 “保는 편안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8] 誦은 비방하다, 헐뜯다의 뜻이다. 《國語·晉語三》에 “惠公入, 而背外內之賂, 輿人誦之曰: ‘佞之見佞, 果喪其田。詐之見詐, 果喪其賂(혜공이 즉위한

30) 輔成王業, 若周公; 保全國家, 若伊尹; 法施於民, 若后稷.

31) 다음 호에 발표예정인 논문 清華簡〈芮良夫毖〉주해(하) 【간문3】 참고

32) 張崇禮(2013) 참고.

후 국내외에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자, 사람들은 이를 두고 풍자하기를 "위선자가 위선자에게 속임을 당해 결국 良田을 얻지 못했고, 간사한 자가 간사한 자에게 당해 결국 뇌물을 얻지 못했네.)"라고 했다.

[9] 畏는 '威'의 통가로, 두려워 복종하게 하다는 뜻이다.

[10] 子居(2013b): 變은 화합하다는 의미이다. 《說文·又部》에 "變은 화합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11] 整理者(2012): 方은 <大雅·韓奕>에 "翰不庭方(來朝하지 않는 나라들을 다스리어)"라고 했는데, 陳奐의 傳疏에 "方은 四方의 뜻"이라고 했다.

[12] 整理者(2012): '戡'은 '讎'와 통하며, 원수, 적을 가리킨다.

【번역】

예전에 선왕 때에는

백성을 다스림에 이미 많은 공적이 있었으며

각종 재난도 없어서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다네.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서로 화합하게 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방종하거나 어긋날 수 없었다네.

.....,

백성들은 서로 화목하고 안정되어

원망이나 비방이 없었으며

늘 온힘을 다해 앞다퉈 공헌하고자 하였다네.

선대의 군왕들은 사방의 제후들과 적들을 복속시킬 수 있었고

그리하여 많은 공훈을 세울 수 있었다네.

【간문10】

古□□□, □□□□。□□元君[1], 甬(用)又(有)聖政惠(德)[2]。以力

[3]及 复 (作)[4], 夔 (變) 戡 (仇)[5] 啟 (啓) 郟 (國)。以 武 叟 (及) 愬 (勇), 戡 (衛) 想 (相)[6]社稷(稷)。襄(懷) 恣 (慈) 學 (幼)弱, 羸 (羸)[7] 冏 (顧)[8] 脛 (癸) [9]蜀(獨)。萬民 具(俱) 懋 (懋)[10], 邦甬(用)昌 箴 (熾)[11]。”

【주석】

[1] 元君은 원수, 군주를 말한다. 《國語·晉語七》에 “抑人之有元君, 將稟命焉(생각하건대 사람들에게 군주가 있음은 그로부터 명령을 받기 위한 것이오)”라고 했는데, 楊樹達 《積微居讀書記·讀國語小識·晉語七》에 “元君은 책에서 말하는 元首와 같다”고 했다.

[2] 整理者(2012): 聖政德는 聖政聖德와 같은 말이다.

[3] 力은 노력하다의 뜻이다. 《詩·大雅·烝民》에 “古訓是式, 威儀是力(옛 교훈을 본받고 올바른 몸가짐에 힘쓰고)”라고 했는데, 鄭玄 箋에 “力은 부지런히 하다(勤)와 같다”고 했다.

[4] 作은 행위의 뜻이다. 《爾雅·釋言》에 “作는 하다(爲)의 뜻”이라고 했다.

[5] 子居(2013b): “變仇”은 곧 앞의 “威變方讎”가 생략된 말이다.

[6] 整理者(2012): ‘想’은 바로 ‘相’이다. 《禮記·樂記》에 “治亂以相(서로 돕는 것으로 어지러움을 바로잡고)”라고 했는데, 陸德明의 《釋文》에 “相은 서로 돕다의 뜻”이라고 했다.

[7] 羸은 ‘營’의 통가로, 보호하다, 도와주다의 뜻이다. 曾侯乙鐘의 樂律名 “羸 亂”은 곧 문헌에 나오는 ‘羸亂’이다. 《淮南子·要略》에 “倣眞者, 窮逐終始之化, 羸埤有無之精(倣眞이라는 것은 終始의 變化를 탐구하고, 有無의 精을 둘러싸고 있다)”고 했는데, 高誘 注에 “羸은 두루 둘러싸다의 뜻”이라고 했다. 朱駿聲 《說文通訓定聲·鼎部》에 “羸은 營의 통가다.”라고 했다. 《墨子·天志中》에 “不止此而已, 欲人之有力相營(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힘이 있는 자는 서로 도와주고)”라고 했는데, 孫詒讓 間詁에 “《文選》 陸士衡 〈贈從兄車騎詩〉의 李善 注에 鍾會의 《老子注》를 인용하여 ‘經(둘러싸다)과 護(보호하다)

가 쌓이다'라고 했다.³³⁾ “經護爲營”의 ‘營’은 곧 보호하다, 도와주다의 뜻이며, 營衛(호위하다)의 파생의미이다.

[8] 冪 은 顧이며, 위 【간문4】의 “冪 (顧)彼後復”과 같다. 顧는 돌보
다의 뜻이다. 《詩·魏風·碩鼠》에 “三歲貫女, 莫我肯顧(삼 년 너를 섬겼는데도
날 보살피주지 않는구나)”라고 했다.

[9] 熒(2013): 熒 은 ‘熒’의 통가이다.

[10] 整理者(2012): 熒은 《說文·心部》에 “熒은 ……또 기쁘다(說)의 뜻”이
라고 했다. 《文心雕龍·論說》에 “說이라는 것은 기쁘다의 뜻”이라고 했다.

[11] 整理者(2012): ‘熒’은 ‘竹’과 ‘惠’聲으로 구성된 글자로, 惠聲字는
戠聲字와 서로 통해 ‘熒’의 통가로 볼 수 있다. 《說文·火部》에 “熒는 盛하
다의 뜻”이라고 했다.

【번역】

……, ……, … 군주

그래서 뛰어난 정치와 도덕이 있어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

적들을 평정하고 나라를 열어

자신의 무력과 용맹으로

국가 사직을 보위하며

어린아이와 약자를 보호하고 안위하며

어렵고 의지할 데 없는 이를 도와주고 보살피

만민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국가가 이로써 번창한다네.

4. 맺음말

33) 文選陸士衡贈從兄車騎詩, 李注引鍾會老子注云‘經護爲營’.

이상 〈芮良夫毖〉 제1수 역주를 마친 바, 李守奎(2013)가 簡文 시에 대해 지적한대로 문장이 古奧하지만 의미가 順暢한 느낌을 준다. 이는 〈芮良夫毖〉가 戒敕의 의미를 갖는 전형적인 毖詩 문장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종합적인 맺음말은 다음 번 논문에서 제2수를 역주한 후에 하기로 한다.

< 參考文獻 >

- 李學勤主編,《清華大學藏戰國竹簡(三)》,上海:中西書局,2012
- 王國維,《觀堂集林》,中華書局,1961.
- 蔡偉,〈讀新見的出土文獻資料札記二則〉,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2012.1224
- 陳鵬宇,〈清華簡〈芮良夫毖〉套語成分分析〉,《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4.2期
- 陳劍,〈郭店簡〈尊德義〉和〈成之聞之〉的簡背數字與其簡序關係的考察〉,《簡帛》第二輯,上海古籍出版社,2007.11.
- 陳偉武,〈讀清華簡〈周公之琴舞〉和〈芮良夫毖〉零筭〉,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1-3)
- 鄧佩玲,〈談清華簡〈芮良夫毖〉“毖”詩所見之諍諫——與《詩》及兩周金文之互證〉,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1-3)
- 方建軍,〈清華簡“作歌一終”等語解義〉,《中國音樂學》,2014.2期
- 郭永秉,〈釋清華簡中倒山并殆“覆”字〉,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1-3)
- 黃傑(2013),〈初讀清華簡(叁)〈芮良夫毖〉筆記〉,簡帛網,2013.01.06
- 簡帛網·簡帛論壇·簡帛研讀,〈清華簡三〈芮良夫毖〉初讀〉帖,2013.01.06~26
- 李守奎,〈清華簡中的詩與《詩》學新視野〉,《中國高校社會科學》,2013.6期
- 李學勤,〈清華簡九篇綜述〉,《文物》,2010.5期
- 馬芳(2015a),〈從清華簡《周公之琴舞》、《芮良夫毖》看“毖”詩的兩種范式及其演變軌迹〉,《學術研究》,2015.2期
- 馬芳(2015b),〈從清華簡〈芮良夫毖〉看“毖”詩及其體式特點〉,《江海學刊》,2015.4期
- 馬楠,〈〈芮良夫毖〉與文獻相類文句分析及補釋〉,《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3.1期
- 蕭旭,〈清華簡〈芮良夫毖〉“富而無况”補證〉,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2013.03.09
- 王坤鵬,〈清華簡〈芮良夫毖〉篇箋釋〉,簡帛網,2013.02.25

- 姚小鷗, 〈〈清華大學藏戰國竹簡·芮良夫瑟·小序〉研究〉, 《中州學刊》, 2014.05.5期
- 王瑜楨, 〈〈清華三·芮良夫瑟〉筭記〉,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2.09.21
- 張崇禮, 〈釋楚文字“列”及從“列”得聲的字〉,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3.06.28
- 趙平安, 〈〈芮良夫 秘〉初讀〉, 《文物》, 2012.8期
- 趙平安, 〈再論所謂倒山形字的字及其用法〉,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4.2期
- 子居(2013a), 〈清華簡〈芮良夫瑟〉簡序調整一則〉, 孔子2000網站, 2013.01.12
- 子居(2013b), 〈清華簡〈芮良夫瑟〉解析〉, 網絡資料, 2013.02.24
- 가이즈카 외 저, 배진영 외 역, 《중국의 역사(선진시대)》, 서울: 해안, 2011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書經》, 서울: 명문당, 2012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詩經》, 서울: 명문당, 2010
- 양상원 외 저, 이원길 역, 《중국을 말한다 - 02 詩經 속의 세계》, 서울: 신원, 2008
- 좌구명 저, 임동석 역, 《국어》, 서울: 동서문화사, 2013
- 좌구명 저, 장세후 역, 《춘추左傳》, 서울: 을유문화사, 2012
- 김석진, 〈중국 清華大學 소장 戰國시대 竹簡〉, 《목간과 문자》 7호, 2011
- 김학주, 〈『詩經』을 중심으로 본 중국 고대의 예악·무〉, 《한국무용사학》 13호, 2012
- 심성호, 〈先秦 詩樂의 結合과 分離〉, 《中國語文學》 29집, 1997.6
- 이연주張崇禮(2014), 〈清華簡「傳說之命」주해〉, 《중국학논총》 46집, 2014.11.
- 이연주張崇禮(2015a), 〈清華簡「耆夜」주해〉, 《중국학논총》 47집, 2015.02.
- 이연주張崇禮(2015b), 〈清華簡「周公之琴舞」주해〉, 《중국학논총》 49집, 2015.08.
- 임봉선, 〈〈小雅采芣〉 연구〉, 《詩經研究》 3집, 2004

< Abstract >

Rui Liangfu Bi(芮良夫悖) is one of ten old documents contained in the 3rd release of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 a collection of Chinese texts dating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which was acquired in 2008 by Tsinghua University. Rui Liangfu Bi(芮良夫悖) is written by Rui Liangfu(芮良夫) during the reign of Zhou King Li(厲王, 879 - 841 B.C.) of West Zhou and is one of the lost poems of the pre-Qin period. It contains the caution and admonition to the ruling class and the king while showing Rui Liangfu's concern about the disorder and confusion of the country. It is one of the typical expostulation poem(悖詩) of the pre-Qin period. This paper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the poem and makes an exegesis of the first piece.

Key words: Rui Liangfu Bi(芮良夫悖), expostulation poem(悖詩), Rui Liangfu(芮良夫), King Li(厲王),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Book of Odes(詩經), Sangrou(桑柔)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12. 31.	2016. 1. 15.	2016. 2. 2.	2016. 2. 19.	2016. 2. 29.